스티로폼 재활용 전북 부안군이 1위

전라북도 부안군이 전국에서 스티로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가장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장을 받는다.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5월12일 서울가든 호텔에서 <제10회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시상식>을 열고 전라북도 부안군을 대상 지자체로 시상키로 했다.

부안군은 2009년 스티로폼 38.4톤을 재활용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스티로폼 재활용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경남 거제시를 선정했으며, 전국 시도별 우수지자체로 서울 영등포구, 부산 사하구, 대구 중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인천 남동구, 울산 동구, 경기 안성시, 강원 고성군, 충남 홍성군, 충북 충주시, 전남 화순군, 경북 성주군, 제주 서귀포시 등 1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5월12일 스티로폼 재활용 유공자로 자원개발 최석기 대표, 한국환경공단 박비호 대리 등 6명을 표창하고, 대상을 수상한 부안군의 재활용 수범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05/11>

Copyright ⓒ 1991 by CMRI